

Minutes of meeting

1. 일시 : 2011년 1월 27일 15:00 ~ 18:00
2. 장소 :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의실 (서울 삼성동)
3. 참석자 :
 - 1] 소형풍력 분야 관련 회사
 - [1] 에니텍사스
 - 1) 홍 사혁 대표이사
 - 2) 씨에이코리아
 - (1) 김동현 대표이사
 - 3) KET Corporation
 - (1) 최영주 대표이사
 - 4) 에어로네트
 - (1) 이진국 이사
 - 5) 아하에너지
 - (1) 안웅헌 부회장
 - 6) 아이알윈드파워
 - (1) 공 준호 대표이사
 - 7) 금풍에너지
 - (1) 황주연 이사
 - 8) 한라파워
 - (1) 장대현 대표이사
 - 9) 시그너스파워
 - (1) 윤양일 대표이사
 - 10)오로라에너지
 - (1) 전정수 대표이사
 - 2] 한국풍력산업협회 관련자
 - [1] 회장 이 임택 (회의 주재)
 - [2] 사무국장
 - 1) 대표전화 이 기윤
 - [3] 소형풍력분과위원
 - 1) 문원학 부장 : 하이젠모터

[Agenda and Issues]

1. 인사 및 간담회 취지 설명
 - 1] 주제 : 협회 회장

2. 각 참석자 회사의 자사 제품 설명 및 특징

- 1) 주제 : 각 사 참석자 대표
- 2) 각 사의 제품 설명

3. 애로 및 문제점

1) 2010년 9월 감사원의 소형풍력보급사업 전면 재 검토의 권고 사항

[1] 현재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있어서, 2010년 9월에 감사원 측에서는 풍량, 풍속 등 국내 여건상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형풍력발전기의 보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그 감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발표함에 따라 감사가 끝난 7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소형풍력발전기 보급이 비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2] 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국내 소형풍력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사업 전면 중단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상반기 중 보급 및 시공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보다 적합한 장소에 고효율의 제품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3] 협회에 요구 사항

1)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1년이나 정부의 지원이 끊기는 것이며, 소형풍력 산업이 이제 막 싹이 트는 단계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대 정부에 대하여 요청할 필요가 있다.

2) 상반기 중 보급 및 시공기준의 개정 시 본 사업은 단순히 감사원 측에서 지적인 경제성 측면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파급되는 국내·외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소형풍력 관련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한다.

3)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계획 중인 상반기 중 보급 및 시공기준 개정에 대하여 소형풍력발전산업이 육성 및 확립 그리고 수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산업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2) 협회보다 앞서 결성된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관련 단체의 많은 호응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양광은 대규모와 소규모의 뚜렷한 구분이 없고 오히려 소형태양광인 경우 "발전차액보상제도"등의 우수한 정책을 수립한 경험이 있다. 소형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사의 애로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 구성에 대하여 늦었지만 다행이다.

3) 2010년 2월 설립된 협회는 "서남해안풍력발전단지" 및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등 대형 및 대기업 위주로 활동하였으며, 소형 및 중형 풍력발전 분야도 한국산업의 기여가 될 수 있는 협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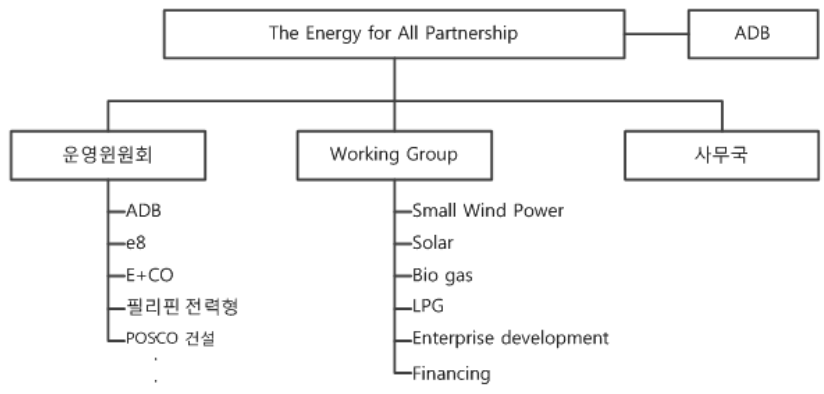
4) 대형풍력발전관련사가 최근 사업적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비하여, 대부분 소형 풍력발전사는 정부의 미약한 지원체제하에 수 십억 원에서 수 백 원의 사업 자금

투자와 수십 년 이 분야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대기업에 비해 미약한 조직력과 자금력은 소형풍력발전산업 성장에 많은 장애적 요소로서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사의 요구사항을 피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대형풍력산업과 소형풍력산업은 상호 시장에서 대립하지 않으며 고유의 시장을 형성하므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므로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상대적인 열세에 있는 소형풍력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 5] 소형풍력발전기 인증 기관 확대 및 인증사이트를 개발을 요청함.(지역별로 풍력특성화 대학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 직 함)

4. energy for all 사업

- 1] ADB (Asian Development Bank)가 후원하는 “The Energy for All Partnership” 산하에 “Small Wind Power” Working Group이 설치됨.
- 2] “The Energy for All Partnership”은 201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빈곤층 1억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2009년 “Asia Clean Energy Forum”을 통하여 창설됨.
- 3] 소형풍력 Working Group의 임무
 - [1] 소형풍력의 지역 Network 구축
 - [2] 소형풍력 프로젝트의 개발
 - [3] 관련 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의 보급 및 확산
- 4] 조직도



- 5] energy for all 사업과 협회의 의견
 - [1] 본 사업은 협회회장이 “Small Wind Power” Working Group의 의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됨
 - [2] 본 사업의 적극적인 동참은 국내 소형풍력발전산업의 미래의 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3] 2011년 3월 9일(회의 시 2월 28일로 통보된 일자가 ADB요구에 의하여 변경 됨)에 관련 세미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본 세미나에 참석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PT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원하는 관련사는 협회와 협의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5. 소형풍력발전산업 분과위원회

1] 취지

각 관련사의 활동사항 보고와 각 사의 제품 설명 등으로 현재 소형풍력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하이젠모터"의 역할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일단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두고 협력하기로 함. 추후 분과 위원장은 적격회사를 선정하기로 함.

2] 각 지부와 담당사

- [1] 서울 경기 지구 : 이이알윈드파워
- [2] 충청지구 : 씨에이코리아
- [3] 영남 지구 : 에니텍시스
- [4] 호남 지구 : 금풍에너지
- [5] 제주 지구 : 한라파워

6. 기타 협조 사항

- 1) 소형 풍력 제조 각사는 국영문 회사 제품홍보자료를 협회에 송부하여 주면 협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주기로 함.
- 2)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Small Wind Working Group Meeting에서 발표 하고 추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 함.

7. 첨부: Catalogues of Small Wind Turbine Generators made in Korea

끝